

충북지역 신간회 괴산지회 활동의 성격

장승순*

-
- I. 머리말
 - II. 신간회 괴산지회의 창립
 - III. 신간회 괴산지회의 활동
 - IV. 괴산지회의 해소
 - V. 일제의 괴산지회 탄압
 - VI. 신간회 괴산지회의 특징
 - VII. 맺음말
-

I. 머리말

일제하 국내의 민족운동전선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사상들이 수용됨에 따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27년에는 민족통일 전선으로 민족주의 좌파계열과 사회주의자들의 연합으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신간회는 해방 직후 극한적인 좌우대립과 이후 남북분단 상황에서 1970년대 이후 분단극복의 역사학이 제창되고 역사의 주체로서 민중이 주목되면서, 민족 내적 대립을 극복하는 하나의 역사적 경험으로서 높은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 충북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박사

신간회에 대한 연구는 처음 1936년의 회고담 형식의 글로 시작되었으나,¹⁾ 시대적인 상황으로 1960년대 이후에는 민족주의적 입장이 주를 이루었다.²⁾ 사회주의 계열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시대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일본이나 미국에서 먼저 연구되어 국내에 소개 될 정도였다.³⁾ 그러다가 민중사학론이 한국 근현대사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전반기에 신간회는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졌다.

그 연구들은 크게 신간회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연구,⁴⁾ 사회주의 계열에 중점을 둔 연구,⁵⁾ 해소에 관한 연구⁶⁾ 등으로 나타났고, 그 연구단위는 거의 지역지회 사례가 중심을 이루었다.⁷⁾

-
- 1) 朴明煥, 1936, 「新幹會 回顧記」, 『新東亞』 54, 1936년 4월호.
 - 2) 李源赫, 1960, 「新幹會의 組織과 鬪爭」, 『思想界』 1960년 8월호 ; 李敏淑, 1962, 「新幹會와 抗日運動」, 『綠苑』 7, 이화여대 ; 李炳憲, 1969, 「新幹會運動」, 『新東亞』 60, 1969년 8월호 ; 李炫熙, 1971, 「新幹會의 組織과 抗爭」, 『史叢』 15-16합집, 고려대사학회.
 - 3) 스키타피노.이정석 외 6인, 1983, 『新幹會研究』, 동녘.
 - 4) 李均永, 1982, 「新幹會의 創立에 對하여」, 『韓國史研究』 26, 한국사연구회 ; 박철하, 2000, 「국내민족해방운동의 활성화와 신간회운동」, 『통일지향우리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 김인덕, 2000, 「정우회선언과 신간회창립」, 『국사관논총』 89, 국사편찬위원회 ; 김정권, 2000, 「기독교세력의 신간회 참여와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5) 한상구, 1994, 「1926~28년 사회주의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론』 3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김인식, 2004, 「신간회운동기 ML계의 민족협동전선론과 신간회 성격규정의 변화」, 『백산학보』 68, 백산학회.
 - 6) 이균영, 1985, 「신간회의 결성에 따른 ‘양당론과 청산론’검토」, 『동아시아문화연구』 7,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김창순, 1996, 「사회주의 진과와 항일운동」, 『한국독립운동사사전』,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 최원영, 1993, 「신간회 해소의 배경과 과정」, 『충북사학』 6, 충북대사학회 ; 이균영, 1994, 「신간회의 분열과 해소운동」, 『쟁점 한국근현대사』 4, 한국근대사연구소.
 - 7) 이균영, 1992, 「신간회 평양지회의 조직과 활동」, 『수춘 박영석교수회갑기념 한국민족운동사논총』 ; 이균영, 1992, 「신간회 군산지회의 설립과 구성원」, 『서암 조항래교수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아세아문화사 ; 조규태, 2000, 「신간회 경성지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89, 국사편찬위원회 ; 조성운, 2001, 「일제하 수원지역의 신간회운동」, 『수원문화사연

특히 이균영은 지회활동을 사례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양, 마산, 군산, 광양, 완도지회의 사례를 분석하며 신간회지회의 설립의 중심은 청년단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회의 설립 유무, 지회수 분포의 차이는 청년운동의 진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⁸⁾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회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오해의 소지도 내포되어 있었다. 그것은 지회활동 연구에 필요한 독자적인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대상이 된 지회들은 거의 활동이 두드러진 지회들이었기 때문이다. 거의 연구된 지역의 지회들은 활동에서 가장 선진적이었던 만큼 전체 지회의 활동수준에서 보면 예외적이라 할 일부 지회의 활동상이 마치 지회 일반의 모습으로 인식하게 했다.

실제로 신간회 지회운동은 지역의 운동가들이 중앙의 흐름을 단순히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는 그 나름으로 운동의 진행 방식이 있었고, 더구나 그 운동을 통합하여 통일전선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도 달랐기 때문이다.⁹⁾ 지역 사회의 민족, 계급운동가들의 역량차이는 지역 사정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반영해 지회활동 또한 다양한 양상을 띠었고 지회 간에 편차도 컸다. 따라서 지회활동의 실체는 그 지역 운동의 내재적 발전과정으로 파악하되 이를 당대적인 민족의식, 계급운동의 흐름과 연관시켜 해명하려는 지역 내재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¹⁰⁾

구』 4, 수원문화사연구회 ; 이현정, 2002, 「신간회 안동지회의 신간회운동」, 『안동사학』 7, 안동사학회 ; 이윤갑, 2004, 「일제하 경상북도 지역의 신간회 지회운동」, 『동방학지』 12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강정숙, 1984, 「일제하 안동지방의 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조성운, 1999, 「일제하 영동지방 농민운동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김승, 2000, 「한말일제하 동래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6, 부경역사연구소 ; 최동일, 2005, 「신간회 괴산지회의 조직과 활동」, 『충북사학』 15, 충북사학회.

8) 이균영, 1987, 「지회설립에 따른 신간회의 「조직형태」 검토」, 『동아시아 문화연구』 11,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쪽.

9) 이윤갑, 2004, 「일제하 경상북도 지역의 신간회 지회운동」, 『동방학지』 12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참조.

충북지역은 당시 10개 군이었지만, 그 중에 신간회 지회가 설립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전국단위로 볼 때 북부지방에 비하여 남부지방에 속한 지역으로 높은 비율로 활동이 이루어진 곳은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 홍명희와 관련이 있었던 괴산지회를 제외하고 나면 지방지회로서 나름으로 열심히 활동하였지만 미비했다.

충북지역 신간회운동에 관한 연구는 유일하게 괴산지회에 국한되며 그것도 몇 편에 불과하다.¹¹⁾ 박결순은 괴산지역의 민족운동을 살피는 과정에서 괴산지역에서 신간회가 중요한 민족운동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처음 보여주었다.¹²⁾ 강신옥은 괴산지역의 민족운동을 청년운동과 연계한 활동으로 신간회 괴산지회의 활동을 살펴보았다.¹³⁾ 여기에 최동일은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려 현장답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괴산지회의 창립자는 당시 청년운동을 전개하던 괴산청년회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¹⁴⁾

그동안의 연구로 괴산지회의 결성과 활동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괴산지역의 내부적 동력이나 내재적 관점의 민족유일당의 신간회 활동이 갖는 의미 등의 성격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괴산청년회가 청년회 활동 과정에서 시대적 조류를 파악하면서 그 속에서 괴산청년회가 발전적인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 속에서 창립된 지회였다는 점, 그래서 지회의 활동이 청년회 활동과 연계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 간과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괴산지역에서 신간회와 연계하여 활동하던 지역 청년운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을 통해 괴산지회 활동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으로 괴산지역 신간회의 설립과정과 설립 후 활

10) 이현주, 1995, 「신간회운동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3, 환울 참조 ; 윤효정, 2007, 「신간회 지회연구의 성과와 과제」, 『역사문제연구』 18, 역사문제연구소 참조.

11) 강신옥, 2001, 『증평·괴산 근·현대사』, 푸른나라 ; 박결순, 1996, 『괴산지방 항일독립운동사』, 괴산문화원 ; 최동일, 2005, 앞 글.

12) 박결순, 1996, 위 책.

13) 강신옥, 2001, 앞 책.

14) 최동일, 2005, 앞 글.

동 내용을 살펴보고, 괴산지회가 청년회와 연계한 지역의 특징은 무엇인지? 내부적 동력으로 새롭게 성장한 혁신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사상적 성향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II. 신간회 괴산지회 창립

괴산지역은 충북지역 중에서도 국권침탈 이전부터 일제에 대하여 격렬하게 항거한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1905년 이후에는 의병활동의 중심지를 이루었으며, 국권이 침탈된 이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충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을 전개한 배일사상의 중심지였다.¹⁵⁾ 일제는

“괴산지역은 일찍이 한일합방을 할 적에 본도에서 이를 반대하는 자가 많았고 본군 출신자로서 慶南 金山 郡司였던 洪某(홍범식-필자주)가 격분하여 자살한 것과 우암 송시열이 명황제를 제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동묘는 민족의식을 자극하고 배일사상을 源泉地로서 관찰되며 그 영향이 심대하다.”¹⁶⁾

라고 하며 괴산지역을 충북지역에서도 가장 배일사상이 강한 원천지로 인정하였다.

괴산지역에서도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3·1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청년단체를 비롯한 각종 운동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때, 유문규,¹⁷⁾ 송종태 등 10명이 발기하여 1920년 8월에 괴산군 읍내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청년회를 결성하였다.¹⁸⁾

15) 1920년대 이전 괴산지역의 의병활동, 3·1운동 및 기타 민족운동에 관한 내용은 박결순, 1996, 앞 책을 참조할 것.

16)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思想部, 1935, 「昭和十年一月乃至十月社會運動情勢」, 『思想彙報』 5호, 56쪽.

17) 유문규는 당시 『동아일보』 괴산분국 주임기자였다(『동아일보』 1921년 12월 7일).

괴산청년회는 첫 사업으로 괴산공립보통학교에 노동야학을 개시하였다. 이때 노동야학에서는 수업자에 대한 일체 학비까지 청년회에서 부담하였다. 또한 풍속개량과 지식개발을 위해 노천교육도 실시하여 시장동 3~4개소에 게시판을 건설하고 시일 1개월에 6회씩 개양하기도 했다.¹⁹⁾

1921년에는 다른 충북지역의 청년회와 연대하거나 전국의 청년운동단체와 함께 활동하였다. 괴산청년회는 청주청년회와 함께 전국청년회연맹조직에도 가입하여 전국적인 청년회운동에 동참하였다.²⁰⁾

청년회는 농민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괴산지역에서는 1922년 평소 지주와 소작인 간의 대립이 심각했던 연풍지역에서 소작쟁의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주들의 탄압으로 별 소득이 없이 소작쟁의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괴산청년회는 조선노동공제회와 연계하여 괴산군 연풍면 소작인들을 중심으로 소작인조합을 결성하여 지주에게 대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이 소작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작인 2,000여 명을 모아 괴산청년회관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지주들의 횡포와 부당한 조목의 해제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와 「결의서」를 경찰서는 물론 군청을 찾아다니며 제출하여 지주들을 굴복시켰다.²¹⁾ 그러나 1923년에 또 다시 소작쟁의가 발생하자 ‘공과금을 지주에게 부담하게 하라’고 하면서 다시 ‘세금 불납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²²⁾

18) 『동아일보』 1920년 5월 10일. 1920년대 초기 청년단체의 운동론은 문화운동론이었다. 그 내용은 자본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지적체 삼육 발달, 교육의 보급, 산업의 발달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안건호, 1995, 「1920년대 전반기 청년운동의 전개」,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63쪽). 괴산청년회도 창립 당시 다른 지역의 청년회처럼 설립취지는 다르지 않았다.

19) 『동아일보』 1920년 9월 18일.

20) 「大寒之後」, 『開闢』 제7호, 1921년 1월 1일. 조선청년연합회에 충북지역에서는 청주청년회와 괴산청년회가 가입하였는데, 청주청년회에서는 유세면이 대표로 참여하여 전국 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21) 장승순, 2013, 「일제강점기 충북지역 농민운동」, 『역사와 담론』 68, 호서사학회, 115~119쪽.

1923년 이후에는 괴산청년회는 교육사업을 확대하며 민족교육을 위해 ‘보성의숙’을 설립 운영하고 노동야학과 여자야학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²³⁾

괴산지역에도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서울 및 주변지역과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이곳을 통하여 양반 유생들의 자식들이나 농촌의 청년들 사이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공명하거나 공산주의 사상을 품고 실천하려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²⁴⁾ 교통의 발달로 주변지역인 서울, 충남, 경기 등 외부지역의 사회운동가들과 접촉하며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된 것이다.

3·1운동 이후 정치 경제적 昂上에서 특히 해외 전보의 조 선기사 등의 구독자가 증가하고 『대관신문』, 『매일신보』 등이 구독자가 작년 25부에서 계속 증가하여 60부의 구매자가 있다 ... 최근에 우려스러운 것은 내지유학생 내지 기타 신학문을 배운 청년학생들에게 감염된 惡思想과 이 사상의 광범위한 전파는 그 취체가 자못 곤란하여 장래 통치 상에 적지 않은 고로 금일에는 그것의 지도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된다.²⁵⁾

라고 하여 단순한 지역 사회 속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외부와의 접촉의 영향으로 1924년 이후에 괴산군 지역에도 많은 청년운동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22) 『동아일보』 1923년 1월 10일.

23) 『동아일보』 1923년 5월 10일. 괴산청년회에서는 신학기 아동의 입학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관에 강습소를 설치하고 아동 60여 명을 모집하였으며, 무료로 신기휴, 정진석, 김순기 등 청년회원들이 교육을 담당하였다.

24)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思想部, 1935, 「昭和十年一月乃至十月社會運動情勢」, 『思想彙報』 5호, 56쪽.

25) 朝鮮憲兵隊司令部, 1919, 『朝鮮騷擾事件狀況』, 262쪽.

<표1> 괴산지역 청년단체 현황(1926년 현재)

단체명	설립일	회장 및 설립자	회원	활동 내용
괴산청년회	1920.8	김태웅,유문규	200	노동야학, 강연, 토론, 사설 강 습회와 신문지국 운영
기독교면려청 년회	1922.1	경환,최재익	60	
소수노동청년 회	1925.6	김상영,김용웅	60	위원제도 도입, 노동야학 운영
증평청년회	1925.6	이봉주,김현국		노동야학
청천청년회	1926.7	이좌승 외	20	품성향상, 지식개발, 풍속개량
괴산소년군	1924.	정진석의 발기		1925년 조선소년군제5호대편입

자료 : 『동아일보』 1924년 1월 23일, 1925년 6월 19일, 1926년 10월 8일에 의거하여 작성함.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괴산지역에는 1924년 괴산소년군을 시작으로 1925년에는 소수노동청년회, 증평청년회가 설립되고, 1926년 청천청년회 등이 설립되었다.

1925년 이후에는 괴산청년회에도 안철수, 구창회²⁶⁾ 같은 일본이나 서울 등지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혁신청년들이 가입하며 변화를 주도했다. 그들은 괴산청년회를 서울지역의 청년운동과 연합하여 활동하기 위해 충청북지역을 아우르는 지역혁신청년들의 모임인 호서기자단의 창립에 동참하였다.²⁷⁾

1926년은 식민지 조선 내에서는 사회운동에 중요한 방향전환이 일어나던 해였다. 이때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진영 사이에서 협동전선의

26) 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31쪽.

27) 호서기자단은 1925년 4월 맹의섭, 전병수 등 『동아일보』 기자들이 경성 천도교 강당에서 열린 ‘전조선기자대회’에 참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충청북 지역 기자들이 모여 조직하였다. 충북지역에서는 호서기자단을 결성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결성하는데, 괴산군, 음성군, 제천군, 단양군, 진천군, 충주군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기운이 고조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청년운동의 진영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청년운동진영에서도 전민족적 청년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시도했다.

그해 11월 15일, '정우회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방향전환'의 열풍이 제기되었고,²⁸⁾ 이러한 움직임은 청년운동의 기본전략과 조직에도 변화를 주었다.²⁹⁾ 청년운동이 추구하는 방향전환론의 골자는 전민족적 청년 대중에게 청충 문호를 개방하며 군·부 단위로 모든 청년 단체를 해체한 위에서 단일 청년동맹을 건설하는 것이었다.³⁰⁾

1926년에 들어와 이러한 분위기를 인식한 괴산청년회의 혁신청년들은 보령지역에서 열리는 사회운동자대회에 충북지역 일선동맹에 가입했던 사회운동자들과 참여하였고,³¹⁾ 다시 대전에서 충남북지역 사회운동자대회가 열리자, 이 대회에도 참가하며 민중운동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리고 괴산청년회의 조직에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

“벌써 6년이 지났다. 외관상 회원은 300여 명이고 천여 원 가치의 회관과 보성의숙과 신문지국을 경영하고 있으나 그 외 필요한 사업이 많다. 그것은 지덕체 교육, 풍속개량, 자선

28) 정우회 선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과거의 분열에서 벗어나 사상단체를 통일하고 구체적으로 전위적 운동을 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을 통하여 대중을 조직화하고 질적 양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그것을 기초로 일상투쟁을 하여야 한다. ③ 종래의 국한되었던 경제적 투쟁에서 계급적, 대중적, 의식적 정치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의 일시적인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④ 이론 투쟁으로 운동의 진로를 제시하여야 한다(『조선일보』 1926년 11월 17일).

29) 한상구, 1994, 앞 글, 206쪽. 한상구는 이 시기에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정치운동으로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동시에 사회주의 진영에도 정치적 형태로의 운동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으로 보았다.

30) 이해숙, 1995, 「1920년대 전남광주지방의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261쪽.

31) 『동아일보』 1925년 12월 18일. 경찰은 이 대회를 불온한 집회라고 규정하여 강제 해산시켰다.

사업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런데 그 못하는 이유는 첫째, 회원 제군의 열심 부족, 둘째, 회중의 기본경제의 부족이다. 본회에 열심인자 일어나 있는가? 의연금을 낸 자 있는가? 입회한지 4~5년에 입회금 1원 또는 월연금 20전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회원이 얼마나 많은가? 기왕 설립한 청년회를 무의미하게 하지 말고 멸망치 않게 발전하게 하여 청년회를 부흥하게 하려면 제군이 좀 생각하여 보아라! 제군이 자수로 설립한 청년회를 이에 자수로 파괴하려 하는가? 근년에 신문지상으로 매일 보도되는 무슨 청년회 창립이니, 무슨 청년회 조직이니, 무슨 청년회 부흥이니 하는 것은 제군들은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남은 창립을 하는데 우리는 기왕 설립한 아름다운 청년회를 무의미하게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으랴? 부흥합시다. 우리 청년회를!”³²⁾

괴산청년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중요한부가 총사퇴하였다. 청년회를 이끌던 지도층은 전면적으로 교체하며 회장체제를 집행위원제로 바꾸었다.³³⁾ 이에 알맞게 괴산청년회의 행동강령도 새롭게 했다.

1. 우리는 史的法則에 순응하자
2. 우리는 科學的 이론의 함양에 노력하자
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하자³⁴⁾

즉, 괴산청년회는 시대적 방향에 맞게 청년운동단체의 활동도 그 방향을 수정하고 신간회의 강령에서 제시하였듯이 기회주의를 배격하며 민족운동의 총역량을 집결시키고자 하였다.

1927년에 이르러 괴산청년회는 적극적으로 안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과 연대하기 위한 활

32) 『동아일보』 1926년 3월 26일.

33) 『동아일보』 1926년 7월 4일.

34) 『동아일보』 1926년 8월 27일.

동을 시작한다.

3월에 충남 대전에서 제1선 동맹(서울계) 주최로 충남북 사회운동자 간담회가 개최되자 이곳에 참석하였다. 충남북사회운동자 간담회는 말 그대로 충남북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활동가 25명이 모여 각자 자기 활동하는 지역의 운동 상황을 보고하고 새로운 방향을 토의하는 대회였다. 이때 서울청년회 집행위원으로 이 모임에 참석했던 차재정은 계급운동의 방향전환으로 “경제적 투쟁에서 정치적 투쟁으로” 필연성을 역설하였고, 영동지역의 운동가인 장준은 “불란서혁명과 압박정치에 대한 대중의 반발로 조선민족의 확고한 대중단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이 발언에 대해 혁명사상을 표현한 불온한 언사라고 하며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³⁵⁾

괴산지역 혁신청년들은 또다시 4월 10일에 대전에서 일선동맹이 사회운동자대회를 개최하자, 이곳에 참여하여 “사회운동자들이 방향전환을 하여 민족의 단결과 독립을 이루자” 라고 주장하다 불온으로 인식되어 역시 해산 당하기도 하였다.³⁶⁾

그 후 여기에 참여했던 괴산지역 혁신청년들은 충북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도 차원의 연합단체를 설립하기로 동분서주하며 상경하여 경성 신간회 본부 회원 등과 교류하였다.³⁷⁾

신간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괴산지역 청년회를 이끌던 혁신청년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점을 청천지역의 일 기자는 잘 표현하고 있다.

“과거 우리의 운동은 국부적이었으며 파생적이었다. 그리하여 전술상 모든 문제는 기분을 떠나지 못하였다. 자연생장적으로 발달되어 전체의 운동은 파적투쟁에 대립화하여 적지 않은 고통을 느꼈다. 그럼으로 자연 생장적으로 부터 목적의

35) 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朝鮮の治安狀況』, 4~5쪽 ; 朝鮮總督府警務局, 1929, 『朝鮮高等警察關係年表』, 218쪽.

36) 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朝鮮の治安狀況』, 4~5쪽.

37) 「안철수 외 1인 판결문」, 刑控 第422號, 1929년 2월 8일.

식적으로 지도 교화하여 운동에 방침을 제시적으로 일 계급을 비약하여 종래에 국한된 경제투쟁으로부터 전 계급적인 정치투쟁으로 방향 전환하는 과정에 당면하였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에 존재한 조선으로서 그 중에도 더 특수한 충북으로서 이 문제를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장차 여하히 진취시킬 것인가? 함이 당면에 놓인 중차대한 문제임을 말미 필요없다 할 것이다.”³⁸⁾

라고 하면서 청년운동의 목적을 자연 성장적인 것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경제투쟁으로부터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괴산청년회는 그들의 운동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신간회 지회의 설립 추진과 괴산청년회를 해소하고 청년동맹으로 거듭나는 일을 동시에 추진했다.³⁹⁾ 괴산청년회에서는 먼저 신간회 괴산지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10월 30일, 괴산지회 설립 준비위원으로 안철수, 김승환, 김용응, 정진석 외 3인을 정하였다.⁴⁰⁾

그들은 지회설립이 충북의 全地域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충북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호응을 얻기 위하여 이 단체에 참가자격으로는 충북제적 또는 현주하는 사회운동자로 소속단체에 성의가 있는 자로 하여 그 참가 범위를 확대하였다.⁴¹⁾

드디어 11월 26일 예정과 같이 신간회 괴산지회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한 신문은 창립대회를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괴산 청년회에서 임시회장 정진석의 사회로 개최하였다. 당시 신간지회의 창립은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띠는 대회였다. 괴산지회의 창립은 충북 일대에 괴산이 첫소리를 치는 이

38) 『동아일보』 1927년 11월 26일.

39) 「朝鮮靑年總同盟常務執行委員懇談會ノ件」, 『思想問題에 관한 調査書類』, 京鍾警高秘 第12481號, 1927년 11월 4일.

40) 『조선일보』 1927년 11월 19일.

41) 『중외일보』 1927년 11월 21일.

때이므로 경찰 당국은 경계가 자못 비상하였다. 동 회회를 준비위원측이 경과보고가 끝난 후 본부 특과 이남용이 취지를 설명하는 중 입석 경관으로부터 주의로 장내 공기는 긴장미를 띠었으며 각 지회에서 온 축전문을 낭독한 후 경성지회 대표 김무삼 외 몇 사람의 축사가 있었다. 강력과 규약을 통과하고 2대 표어로 민족단일당 기치 아래 모이자!, 대중의 총역량을 모으자! 총회 이후 선거에 들어 전형위원 7인에게 일임하여 당선자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회관 문제와 유지방침 등은 간사회에 일임한 후 오후 6시 30분경에 만세삼창으로 아무 탈 없이 폐회하였다.⁴²⁾

괴산지회는 충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창립하게 되었기 때문에 충북 지역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부에서도 특과원을 파견하여 축사까지 하였다. 창립대회를 마친 괴산지회는 그 사무소를 괴산청년회관 내에 두고 신간회 괴산지회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Ⅲ. 신간회 괴산지회의 활동

신간회는 중앙의 설립과 함께 전국적으로 많은 지회가 설립되었지만, 그 지회들은 지회로서의 활동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중앙지회를 주도하던 주도층이 민족주의자들에서 공산주의자들로 변화하고, 민중대회사건 이후 민중 속으로 침투하려는 의도를 지시할 때까지 일정한 방향을 잡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행동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간회 각 지회들은 그 내부 동력에 따라 활동 내용도 다르게 행동하였다.⁴³⁾

42) 『조선일보』 1927년 12월 1일.

43) 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朝鮮の治安狀況』, 19~20쪽. 일제는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불온단체정도로 규정하며 신간회의 활동을 ① 집회, 기타에서의 민족해방, ② 신사회 건설, ③ 제국주의 전쟁 반대, ④ 약소민족의 국제적 단결, ⑤ 소비에트 연방 옹호, ⑥ 중국혁명 성원, ⑦ 언론 집회 결

괴산지회도 정기총회를 통하여 지회의 추진사업을 결정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지회유지에 관한 건
- ② 선전과 조직 방침에 관한 건
- ③ 회원의 교양문제에 관한 건
- ④ 정치문제에 관한 건
- ⑤ 청년문제에 관한 건
- ⑥ 농촌문제에 관한 건
- ⑦ 노동문제에 관한 건

사의 자유획득, ⑧ 교육 산업정책의 반대, ⑨ 공과금의 반대, ⑩ 각종 지방시설의 논의, ⑪ 학생선동으로 동맹 휴교, ⑫ 불온문서 살포로 민중 선동, ⑬ 지방에 안영을 저해하는 활동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균영 같은 경우는 신간지회가 추진한 활동은 크게 사회적, 정치적 활동으로 분류하고 사회적 활동을 다시 ①계몽운동, ②일종의 생활, ③생존권수호운동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계몽운동의 내용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을 웅변대회와 연설회 등으로 보았다. 따라서 연설회의 주제는 신간회를 선전하고 신간회를 통하여 단결을 이루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야학을 운영하는 것도 대표적인 방법이다. 또한 일종의 생활, 생존권 수호운동도 중요한 사회적 운동이었다. 그중에 전자는 민중들이 더 나은 경제생활 영위를 위한 방편과 관계되는 것이며, 후자는 가진 계층, 계급으로부터 생존에 관계되는 권리를 확보하려는 운동으로 보았다. 그리고 생활수호운동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비조합의 설치, 차가문제 논의도 중요한 분야의 한 가지 사업이었다. 생존권수호운동은 반제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으며 대부분이 농민, 노동운동 및 사상운동과 신간회 운동이 결합된 형태였다. 농민의 소작료와 소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포괄적으로 보며,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치적 활동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지만, 정우회선언에서 ‘정치적 투쟁’ 선언에 있었던 이후 이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는데 정치적 투쟁이란 첫째, 억압과 착취를 벗어나려는 자유에 대한 생생한 요구, 둘째, 민족문제로 포괄 될 수 있다. 정치문제에 대한 정책안으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요구였다. 각종 자유에 대한 요구는 자연히 그것을 억압하는 법률의 철폐와 관계되는 것이었다. 단결권, 파업권보장, 8시간 노동제 실시, 소년, 부인의 야간 노동과 갱내노동운동 금지 등에 대한 요구 역시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였다. 한편 조선인 차별 문제, 군대 주둔 반대, 조선인 본위의 교육과 조선어 사용 등은 한층 민족문제에 접근한 정책안이라고 보았다.

- ⑧ 여성문제에 관한 건
- ⑨ 제월리 도로문제에 관한 건⁴⁴⁾

즉, 괴산지회는 지회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정치, 청년, 노동, 농촌문제 등을 다루는 사회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했다.

1. 신간회 지회로서의 활동

신간회 괴산지회는 창립 이후 1927년 12월 20일 괴산 청년회관에서 총무간사회를 개최하고 괴산지회로서의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괴산지회는 우선적 사업으로 괴산군 관내 각 청년 단체조사를 조사하고 당시 당면한 재만동포 옹호연설회 개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였다. 이 문제 해결은 당무 간사 경기홍, 박일양에게 일임하여 당시 청년회와 연합할 것을 결의하였다.⁴⁵⁾그날 괴산지회는 임시 간사회를 개최하고서 괴산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대회 개최 시기, 방법과 홍보 선전문을 작성,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⁴⁶⁾

1928년, 괴산지회는 정기대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동아일보사 인물 투표반대에 관한 건과 본부대회 건의안 등을 협의하였다. 이 문제는 심사위원으로는 김용웅, 김승환, 경기홍으로 정하고, 담당 실행위원은 안철수, 박일양, 김무기로 하고, 괴산 청년회 집회 해산의 건 교섭위원은 김태응을 선정하였다.

3월 15~16일 간에 걸쳐 지회 사무실에서 임시 간사회가 개최되었다. 15일의 임시 간사회에서는 사임원을 낸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신연

44) 『동아일보』 1927년 12월 25일. 괴산지회는 1928년 1월에도 정기대회를 통하여 그 동안 운영해오던 방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① 지회유지 방침, ② 선전 및 조직 방침, ③ 교양 방침, ④ 정치문제, ⑤ 청년문제, ⑥ 여성문제, ⑦ 농민문제, ⑧ 노동운동 등으로 정했다(『동아일보』 1928년 1월 11일).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괴산지회가 추구하는 활동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45) 『동아일보』 1927년 12월 20일.

46) 『동아일보』 1927년 12월 20일.

우의 원을 받아들여 후임을 새로이 보선하였고, 16일 회의에서는 회원 모집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실천에 노력하여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흡수할 것과 회비와 유지비를 가급적 조속히 납부할 것 등이 논의하기도 하였다.⁴⁷⁾

한편, 피산지회는 지방지회로서 중앙지회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조직과 연계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피산기자동맹은 피산청년 회관에서 약 1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근우회 상무집행위원 심은숙과 신간회 경성지회 홍기문이 참여하였는데 경찰의 간섭으로 홍기문은 처음부터 강연이 금지당하고 심은숙이 안철수와 박일양의 권유로 경기흥의 개회사로 개막하였으나 주의 중지를 연발하여 겨우 1시간 만에 연사 검속하고 폐회하였다. 이때 연사 및 연제는 「약자의 활약」(박일양), 「여성의 과거와 장래」(심은숙), 「우리 운동의 현단계」(안철수)였다.

이 사건으로 안철수와 박일양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결국 박일양은 10일 구류처분을 받았다.⁴⁸⁾

그 후 근우회와의 연계를 피하기 위하여 근우회 간부인 심은숙을 초대하여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28년에는 신간회의 전국대회가 무산되고, 근우회가 전국임시대회를 개최하자, 피산지회와 피산청년동맹은 근우회 임시대회에 참석하고, 피산지회에서는 축전을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축! 근우회 전국대회! 力強한 성장이 있으시길 … 志固한 전투를! 해방의 유일한 전투적 이론으로 만세! 근우회 전국대회 만세! 1928년 7월 14일 신간회 피산지회.”⁴⁹⁾

47) 『동아일보』 1928년 3월 20일.

48) 『조선일보』 1928년 5월 4일.

49) 「權友會 全國臨時大會 狀況報告」, 『思想問題에 관한 調査書類』, 경중경

라는 축문을 보내어 근우회를 격려하며, 함께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1929년에 이르러 신간회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정기대회 및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간회는 그 대안으로 복대표 대회를 실시하였다.

복대표 대회는 정상적인 신간회활동이 차단된 상태에서 그 대안으로 각 지회에서 회원 수에 비례하여 대표회원을 선출하고 그 대표회원들이 본부에 모여 정기대회를 개최, 규약과 임원을 개선하는 정기대회를 대신하는 대회였다.

신간회 본부에서는 전국을 14개 구역으로 나누고 회원수에 비례하여 각 구역을 소구역으로 나누어 각 지회에 소속 구역을 지정하였다. 14개 소구역대표수는 경성 2명, 경기 1명, 강원 1명, 충남 1명, 충북 1명, 경남 4명, 경북 6명, 전남 3명, 전북 2명, 평남 2명, 평북 2명, 함남 3명, 함북 4명, 일본 2명 등 총 34명이 선출되었다. 이때 충북지역에서는 괴산지회의 안철수가 대표로 선출하였다.⁵⁰⁾

안철수는 대표로 선출된 이후 다시 중앙지회에 진출하여 활동하였다.⁵¹⁾ 이것을 계기로 당시 괴산지회에서 활동하던 안철수, 박일양은 중앙본부 신간회의 중앙 집행위원이 되기도 하였다.⁵²⁾

1929년 11월 3일 광주지역에서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였다. 신간회는 이 운동에 주목하며 이 운동을 민족적, 민중운동으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신간회는 광주학생운동을 “기미운동 이후 10년 이래 초유의 대사건”⁵³⁾으로 인식하며 광주학생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했다. 그리하여 지방 신간지회들에 “본부와 동일하게 행동하라!”, “본부와 함

고비 제8038호, 1928년 7월 18일. 이때 괴산청년동맹에서도 축하문을 함께 보냈다.

50) 「新幹會本部 通文郵送ニ關スル件」, 『思想問題에 관한 調査書類』, 경중경 고비 제6015호, 1929년 5월 8일.

51) 「新幹會代表委員회ニ關スル件」, 『思想問題에 관한 調査書類』 7, 경중경 고비 제8559-1호, 1929년 6월 29일.

52) 이균영, 1993,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80쪽.

53) 『조선일보』 1930년 1월 8일.

계 곧 행동으로!” 등의 지령을 발송하였다.⁵⁴⁾

또한, 신간회는 조선학생전위동맹과 제휴하며 민중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협의를 위하여 학생선동의 각 임무를 분담하고 격문을 제작하는 임무를 곽현에게 맡기고 학생선동의 임무를 맡은 장석천이 각 학교에 나누어 주어 시위운동을 강행할 것을 전국 지방 각지에 보급하였다.⁵⁵⁾

이러한 신간회 중앙본부의 지시에 따라 충북지역에서도 광주학생운동에 동참하는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1930년 1월 21일 청주 공립고등보통학교와 농업학교 학생들이 시내와 무심천 등지에서 “조선학생은 자각하고 2천만 동포의 자유를 구하자! 만세! 만세!” 등의 내용을 담은 삐라를 배포하며 독립만세를 불렀다.⁵⁶⁾

그러나 중등학교가 없었던 괴산지역에서는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을 주도해 나갈 수가 없었다. 1월 25일 괴산군 청천면 시장에서도 장날을 이용하여 괴산공립학교 보통학생 6년생 조태용 외 5명이 공모하여 “조선학생 만세!” 등을 기재한 인쇄물을 살포하고 시위를 나설 계획 중인 것을 관찰서에서 발견하였다. 26일 야간 취조에서 이미 제작하여 갖고 있던 “조선학생 만세!” 등의 인쇄물 170매를 압수당하였다.⁵⁷⁾

54) 이준식, 2000, 「광주학생운동과 민족운동 세력」,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168~200쪽.

55) 梶村秀樹·姜德相, 1976, 『現代史資料』 29, みすず書房, 374~376쪽. 충북 지역에도 운동노선을 통일하고 공산당조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3~4월경 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 심치령, 황대용, 임운재, 중앙 청년동맹 집행위원 부건, 광량훈, 신간회 집행위원 이항발 등이 만나서 회합하고 구체적으로 결의한 결과 조선공산청년회를 조직하고 중앙간부조직 및 도 책임자 결정했는데, 중앙 책임비서는 차재정, 충청도 책임은 임운재로 정했다. 세포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각 도 간부를 선정하는데 충청도 간부기관은 윤영순, 조병시, 이정하 등으로 활동하게 하고, 10월에는 중앙청년동맹 동구지부에서 다시 협의한 결과 충청지역의 책임비서는 임운재, 서무부 최기윤, 선전부 이정하, 재무부 이병시, 학생부 윤영순으로 선정하였다.

56)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朝鮮の治安狀況』, 89~90쪽.

57) 朝鮮總督府警務局, 1979,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 風媒社, 178쪽.

1월 27일 괴산 공보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계획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 10여 명이 이날 학교를 포위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일일이 수색하여 5학년생인 조태용이 지니고 있던 붉은 잉크로 쓴 격문 100여 매를 압수하고 검속하였다. 일경은 28일에도 계속 검색하여 신창범 등 7명을 체포하였다. 이때 여기에 참여한 권한성, 임현상 2명은 괴산 보성의숙 졸업생으로서 배후에 같은 학교 경영자인 괴산지회 집행위원 안철수를 의심해 바로 내사를 받았다.

만세시위로 집중적인 감시를 받던 괴산지회는 시위지역을 충주지역으로 옮겼다. 2월 7일에는 충주 대소원보통학교에서 학생 27명이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 후 다시 청주, 괴산 등지에서 다시 뼈라를 배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도내 전체에 파급되었고,⁵⁸⁾ 이 사건으로『동아일보』분국기자 충주지회 간부인 박의양 외 2명이 구류처분을 받았다.⁵⁹⁾

2. 청년회 연계활동

괴산청년회가 청년동맹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그들의 활동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정했다.

- ① 청년운동에 관한 건
- ② 신간지회 설치 촉성에 관한 건
- ③ 소작운동에 관한 건
- ④ 노동운동에 관한 건
- ⑤ 형평운동에 관한 건
- ⑥ 사회운동에 관한 건⁶⁰⁾

즉, 괴산청년회는 사회운동단체로서 신간회 괴산지회를 설립하고 지

58)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朝鮮の治安狀況』, 89~90쪽.

59) 『조선일보』 1930년 1월 20일 ; 박의양은 『동아일보』 충주지국 대소원 분국 총무 겸 기자였다(『동아일보』 1930년 2월 3일).

60) 『동아일보』 1927년 11월 13일.

회와 함께 활동하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일은 괴산청년회의 안철수는 임원상, 김인식, 이장화, 박일양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그들은 괴산지역 각 단체의 회장들과 회합하며,⁶¹⁾ 괴산지회와 공조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청년회를 청년동맹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괴산청년회에서는 1927년 11월 11일 집행위원회에서

- ① 재정번영의 건
- ② 해체승인의 건
- ③ 해체 총회를 1월 31일에 개최할 것⁶²⁾

등을 결정하고 괴산청년회를 해체하고 괴산청년동맹으로 교체하려 하였다. 이들은 괴산청년회를 分散無統한 단체로 규정하며, 괴산청년회를 해체할 것을 결의했다.⁶³⁾ 이듬해인 1928년 2월 9일, 괴산청년회를 이끌던 안철수, 이전용 등은 괴산청년동맹⁶⁴⁾지부를 창립하였다.⁶⁵⁾

괴산군 구역 내 거주하는 청년 또한 괴산지부를 설립코자 준비 중인데 지난 26일 오후 2시에 괴산 청년동맹회관에서 준비위원 조대규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임시특별위원 박일양

61) 『중외일보』 1928년 1월 9일.

62) 『중외일보』 1928년 1월 16일.

63) 「朝鮮靑年總同盟執行委員懇談會關ノ件」, 『思想問題에 관한 調查書類』, 京鍾警高秘 第1218號, 1930년 2월 5일 ; 「朝鮮靑年總同盟執行委員懇談會關ノ件」, 京鍾警高秘 第5388號, 1929년 4월 30일. 이때 충북지역에서는 괴산청년동맹의 안철수가, 영동청년동맹의 김태수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발기대회에 참가했던 단체는 영동의 칠월회가 처음이었고 2차로 참여한 단체는 영동과 괴산 그리고 충주지역이 참여했다. 그 중에 영동과 괴산지역은 신간회 활동이 어려울 때 청년 동맹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여 다른 단체의 연대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64) 청년총동맹은 서울청년회와 조선청년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창립된 단체로 점차 사회주의 청년운동 세력이 주도해 나갔다. 청년운동을 순수 무산계급청년만을 본위로 했던 지금까지의 경향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의 청년대중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65) 『동아일보』 1928년 2월 9일.

을 선거한 후 중앙조사부장 경기홍의 취지 설명이 있고 괴산 신간회 지부 대표 안철수와 유지측로 金思舜의 축사가 끝나자 소수, 문광지부에서 들어온 축문을 낭독한 후 후임위원 선거하여 위원장에 박일양과 위원 조규대 외 5인을 선정하였다.⁶⁶⁾

괴산청년동맹의 창립대회가 완료되자 신간회 괴산지회 후원으로 선전대를 조직하여 자동차로 시내 시위를 순화하며 수천 명의 배라를 뿌리고, 준비위원장 안철수가 개회사를 선언하고 임시의장으로 경기홍, 임시서기로 김정렬, 유정규를 선거한 후 의사를 진행할 때 맹원심사에 들어 139명을 선택하려고 준비회 경과 보고를 마친 후, 준비위원 박일양의 간단한 취지 설명이 있었다. 청년동맹은 실천해 나갈 강령도 정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우리는 조선 청년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이익의 획득을 기함.
1. 우리는 조선 청년대중의 의식적 교양과 훈련의 철저를 기함.
1. 우리는 조선 청년대중의 공고한 단결의 완성을 기함.⁶⁷⁾

즉, 청년대중의 정치, 경제적, 민족적 의식의 교양을 통해 단결을 이루어 조선 민족의 독립을 획득하고자 했다. 결성대회를 마친 괴산청년동맹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동맹이 실천할 제정책안을 수립했다.

<정치>

- (가) 조선청년 남녀의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 획득
- (나) 조선인을 특수적으로 취급하는 제도 및 법령 폐지

66) 『동아일보』 1928년 3월 1일.

67) 『동아일보』 1928년 2월 9일.

- (다) 조선 남녀 아동의 의무교육제 확립
- (라) 이민정책 반대
- (마)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자유권 획득
- <경제>
- (가) 유년노동 금지
- (나) 8시간 노동제 실시
- (다) 소작권 확립
- (라) 소작료의 합리화
- (마) 소작인에 대한 부당한 역 폐지
- (바) 두세 및 부당한 징수 금지
- <사회>
- (가) 봉건적 허례 타파
- (나) 여성, 백정, 노예, 청년에 대한 사실상 차별 폐지
- (다) 인신매매 사실상 폐지
- (마) 18세 이하 남녀의 강제 결혼 금지
- (바) 18세 이상 청년 남녀의 자유결혼 및 이혼권 획득
- (사) 공설 도서관 설치 및 무료 개방⁶⁸⁾

즉, 청년동맹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분야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선정하였다.

청년동맹은 산하 활동조직으로 보성의숙 및 부설 여자야학 등을 조직해 운영하였고,⁶⁹⁾ 계몽활동의 일환으로 강연회를 실시하거나, 여류 대강연회를 개최하거나 호서민중운동 기자회견의 개최, 노동절 메이데이 행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⁷⁰⁾

한편, 괴산청년동맹과 군동맹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지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맹원들의 고향에 청년동맹 지부를 설치하려 하였다. 괴산 지역에서 제일 먼저 청년동맹의 지부설립을 추진한 지역은 청천지역이었다. 청천청년회는 품성향상, 지식계발, 풍속개량의 계몽적 성격으

68) 『동아일보』 1928년 2월 25일.

69) 『동아일보』 1928년 3월 6일.

70) 『동아일보』 1928년 5월 1일.

로 설립되었지만⁷¹⁾ 혁신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부흥을 꾀하였다.⁷²⁾ 괴산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정상렬이 중심이 되어 규약을 변경하고 집행위원을 새롭게 선출하고 강령과 규약도 새롭게 채택하였다. 그 강령 내용은

1. 아등은 역사적 필연법칙에 의한 대중분위에 사회건설을 기함.
1. 아등은 무산대중의 대동단결을 목표로 대중해방운동에 선구됨을 기함.
1. 아등은 계급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을 토대로 무산자 교육에 노력함.⁷³⁾

으로 볼 때, 청천청년회는 청년들의 계급의식의 고취 속에 그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해방운동을 전개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설립 후 청천청년회는 이좌승이 중심이 되어 시민대회를 열고 신간회 괴산지회가 추진하는 재만동포옹호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재만동포 옹호동맹을 결성하기도 하였다.⁷⁴⁾

괴산청년동맹은 청년동맹활동의 사업 확대를 위하여 다른 관내 면 지역에 지부 설립을 확대한다. 소수지역에서는 소수의 수리지역에 거주하는 동맹원 김태규의 집에서 소수지부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괴산 청년동맹위원장 안철수의 취지 설명이 있었고, 동맹 측의 이태술과 괴산지회 측의 경기홍의 측사도 함께 이어졌다. 그 후 일정에 따라 제부서 세칙을 통과한 결의 사항을 정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회관에 관한 건

71) <표1>의 청천청년회 내용을 참조할 것.

72) 『동아일보』 1927년 3월 9일.

73) 『매일신보』 1927년 3월 9일.

74) 『동아일보』 1927년 12월 19일.

2. 지부 유지에 관한 건
3. 소수 농민조합 설치 축성에 관한 건
4. 대표원 선정에 관한 건
5. 예산에 관한 건⁷⁵⁾

소수지역에서는 청년동맹의 지부 유지도 중요했지만, 소수 청년동맹 지부도 소수 노농청년회로 출발한 단체였기 때문에⁷⁶⁾ 그들의 관심인 농민조합의 설립도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보여준다.

연풍지역에서는 연풍에 거주하는 동맹원인 황인국, 조기현 등이 준비하여 연풍면 노동 야학부 강당에서 의장 조세현을 선출하며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괴산 청년동맹에서는 이덕용이 취지 설명을 하였고, 박일양과 안호가 축사를 함께 했다.⁷⁷⁾

또한, 문광면 대명리에서는 2월 18일 문광지부가 설치총회를 개최하였다. 동맹원이었던 조종록이 임시회장이 되어 의사를 진행할 때, 박일양의 취지 설명과 안철수의 축사가 있는 후 지부 세칙을 통과하고 결의사항을 정하기도 하였다. 이때 피선된 위원은 위원장 조종록, 위원 정명헌 외 1인이었다.⁷⁸⁾ 그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관은 임시로 대명리에 둘 것
2. 유지비는 매월 5전으로 할 것
3. 대의원은 차후 임시총회에서 선거할 것

이렇게 1928년에 들어와서도 괴산지역에서 청년동맹은 계속 설립되었다.

1929년에는 증평지역에도 청년동맹 증평지부가 설립되었다. 7월, 증평지역에 설립되었던 증평청년회에서도 김현국, 양희득 등 혁신청년들

75) 『동아일보』 1928년 2월 15일.

76) <표1>의 소수노농청년회의 내용을 참조할 것.

77) 『조선일보』 1928년 2월 15일.

78) 『동아일보』 1928년 2월 25일.

이 중심이 되어 청년동맹 지부 설립을 위한 7월 1일 설립준비를 마치고, 3일 설립 총회를 가졌다. 활동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1. 사무소에 관한 건
2. 맹원교육에 관한 건
3. 지부유지 방법에 관한 건
4. 대표원 선거에 관한 건⁷⁹⁾

그리고 회장은 증평청년회 설립을 주도하던 양희득을 선출하였다.⁸⁰⁾ 그 후 증평지역 청년운동은 양희득이 중심이 되어 괴산지역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증평청년회는 증평지역의 무산아동을 교육하기 위한 야학을 실시하기도 하였다.⁸¹⁾ 이렇게 조직된 괴산지역의 청년동맹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청년동맹들은 그들의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운동단체로서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그들의 활동범위를 넓히고자 하였다.

3. 지역사회 운동단체로서의 활동

괴산지회는 1920년대 초기부터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던 지역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해결은 지회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괴산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보수적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괴산군의 감물면에서는 지역의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며 自制團을 조직하여 지역주민의 활동을 규제하였다.

이에 괴산청년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1928년 1월 28일 임시대책회의

79) 『중외일보』 1929년 7월 1일.

80) 『중외일보』 1929년 7월 7일.

81) 『중외일보』 1930년 1월 18일.

를 개최하였다. 이곳에서 신간회와 청년회는 감물면 김승리 양반자위단을 해체되어야 할 조직으로 간주하고 그 해체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날 회의에서는 양반자위단 해체 이외에도 청년회를 청년동맹으로 전환하기 위한 괴산청년동맹준비 후원회를 조직하는 건, 동아일보사 인물 투표반대의 건 등을 논의하고, 그 일은 간사회에 일임하였다.

청년동맹은 신간회의 이름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활동을 대신 실천하려 하였다. 사회운동방향의 결정은 운동 주체 세력의 사회적, 사상적 기반의 많은 영향을 받는다. 청년동맹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개 1920년대 초에 지역 청년회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다가 2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기자들로 활동하며 사상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운동을 주도하여 나가려고 했다. 신문기자들은 호서기자단을 이용하여 언론 활동 및 지방 청년 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야학 및 교육 봉사활동 등과 정치, 사회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유지로서 활동하였다.⁸²⁾

1928년 4월, 괴산지역에서는 괴산청년동맹이 주체가 되어 호서기자단을 발판으로 하여 괴산기자동맹을 창립하였다. 창립대회는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대회는 괴산지회의 안철수가 사회를 맡고 서기로 이덕용이 활동하며 괴산지역의 기자들이 다 참석하였다. 이들은 이곳에서 기자동맹이 실천할 강령과 규약도 정했는데⁸³⁾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령>

1. 우리는 언론의 권위를 신장 발휘함에 철저를 기함
2. 우리는 일치한 步調에서 공정한 필봉으로 사회의 木鐸됨을 기함

82) 지수걸, 1999, 「일제하 충남 조치원 유지 맹의섭의 ‘유지기반’과 유지정치」, 『역사와 교육』 3·4, 웅진사학회, 584쪽.

83) 『중외일보』 1928년 4월 28일.

3. 우리는 대중이익에 적극적 노력과 현실폭로의 철저를 기함

<결의>

1. 언론에 관한 건

가. 일치한 보조로 언론의 권위를 신장함

나. 언론의 자유획득을 기하여 투쟁함

다. 암흑한 이면의 현실을 폭로함

2. 본사에 관한 건(略)

3. 우리에게 불리한 법령의 改廢運動을 일으킴

4. 신간회, 三總, 근우를 支持하는 동시에 차에 반동되는 분자는 철저히 배격함

5. 괴산청년동맹에서 주최하는 湖西民衆運動者大會를 적극 후원함

6. 악 지주 마음을 조사 발표함⁸⁴⁾

이렇게 괴산기자동맹은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신간회 지회로서의 역할과 함께 농민, 노동, 근우회 운동과 연계한 활동을 전개하려 하였던 것이다.

IV. 괴산지회의 해소

1927년 이후 활동을 전개해 오던 신간회는 1931년에 들어 해소되기 시작한다.⁸⁵⁾ 1930년대에 들어서면 충북지역 신간회 각 지회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다. 『삼천리』 제9호에서는 “충북으로 말하면 청주 1개소

84) 『동아일보』 1927년 4월 28일.

85) 신간회 해소문제는 1930년 12월 6일 부산지회 정기대회에서 처음 제기되었지만, 이 문제의 실행여부는 한 지역사회에서 전개되었던 신간회 지회의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코민테른의 지령과 이에 따른 중앙본부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그 실천 여부는 그 지역 신간회 지회를 이끌어 갔던 회원들의 사상적, 활동적 성격을 반영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가 유력하고 다른 지역은 소강상태”라고 밝힐 정도로⁸⁶⁾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하던 충북지역 신간회 각 지회들도 해소 문제를 결정해야했다.

충북지역에서는 영동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소문제를 결정했다. 원래 영동지역에서는 일제의 방해와 금지로 지회를 정식으로 창립할 수는 없었지만, 영동청년동맹에서 신간지회 활동도 함께하고 있었다.

영동지역의 혁신청년들은 1931년 초부터 농민조합 내 청년부 설치 문제, 청맹 해소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⁸⁷⁾ 1931년 2월 영동청년동맹 집행위원회에서는 객관 정세로 판단할 때 해소문제의 제출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주체적 조건이 아직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영동청년동맹은 군내 사회단체 해소 문제를 환기하고 통일된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 영동 사회운동자간담회를 주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청년동맹과 신간지회의 전투적 해소를 금년 안에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⁸⁸⁾

그렇다면 같은 충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같이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청년동맹운동과 신간지회 운동을 병행하던 괴산지회의 해소과정은 어떠했을까?⁸⁹⁾ 당시 괴산지회 소속이었던 안철수는 신간회 지회의 해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해소를 찬성한 지회 대표는 반드시 해소를 찬성해야 하고 해소반대결의가 있었던 지회대표는 반드시 해소를 반대해야 한다는 원칙도 없었습니다 … 그 때문에 본부과의 동향을 비교적 잘 알 수 있었지요. 전형위원에 본부과를 넣으려는 시도가 없었어요. 막연히 믿기만 하고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못

86) 『삼천리』 제9호, 1930년 10월 1일.

87) 『조선일보』 1931년 1월 27일.

88) 『동아일보』 1931년 2월 26일.

89) 괴산지회의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간접적인 자료들이나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서 유추 이해할 수 밖에 없다.

했지요. 더욱이 본부파란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해서 머리만 덜렁 있는 셈이니 조직적으로 나가기가 어려웠겠지요. 반면에 해소 반대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해소파가 센 지역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대표들이 대거 몰렸지요 … 사회주의자들과 해서 다 해소파는 아니고 박상훈 같은 이는 민족진영이면서도 해소파였지요. 그러나 대개 사회주의자들은 해소파민족주의자들은 반해소파 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해소파 조직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회에서 해소 분위기를 틀어잡은 것은 카프의 젊은 맹장들이었지요. 임화, 윤기정이 그런 사람들이 30년 들어 이론으로 온 운동계를 잡았던 고경흠 같은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해서 분위기를 잡았어요. 이 분위기 때문에 해소 찬반투표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기권해 버린 사람들이 많았지요. 또 나와 함께 간부로 뽑힌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 대회에 직접 참석한 인물이었어요.⁹⁰⁾

이처럼 안철수의 증언을 통해서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모두 해소파도 아니고 민족진영에도 해소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해소를 주장하는 것은 사상보다는 카프적인 생각을 갖는 젊은 맹장의 생각이 더 중요했다고 보았다.

괴산지회의 해소에 관한 사실은 일제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간접 유추해 볼 수 있다.

“괴산지부는 정치, 청년, 농촌, 노동, 여성문제 등 사회진반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괴산청년회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 근래의 관내의 치안은 평온하고 사상단체로서는 전부터 관내 사상단체의 중심으로 보여 지던 괴산청년동맹 및 동지부는 집행위원장 安喆洙의 타도로 전출로 인하여 본년 3월 당국의 중용으로 인하여 해소되어지고, 현재에는 衡平社 청안

90) 이균영, 1993, 앞 책, 97쪽.

지부, 괴산지부 등이 확인될 뿐으로 진정된 상태다.”⁹¹⁾

이처럼 「보고서」에서는 지속적인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던 신간회와 청년동맹의 해소는 괴산지역의 신간지회와 청년동맹에서 활동하던 안철수 등이 3월에 강제로 타도로 진출되자,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청년동맹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동맹과 괴산지회의 해소를 결정했다고 하였다.⁹²⁾

V. 일제의 괴산지회 탄압

괴산지회가 지회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요인 중에는 일제의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이 작용했다. 일제는 괴산지역에서 지역사회운동단체로서 괴산청년회가 설립되어 활동할 때부터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20년대 중후반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는 청년회나 신간회의 활동을 같은 종류의 민족해방운동으로 이해하고, 이 두 단체의 근본적인 와해와 활동의 방해를 위한 탄압을 실시하였다.

특히 혁신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괴산지회를 창립하자 이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탄압은 지회가 설립되는 때부터 시작되었다.

신간회 제1회 전국대회를 당국으로부터 금지 당함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이때에 15일 전국적으로 거행될 창립기념식이나 의미 있게 거행하려고 신간회 괴산지회에 서는 그 준비에 매우 바쁘게 움직이던 중 뜻밖에도 지난 2월

91)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思想部, 1935, 「昭和十年一月乃至十月社會運動情勢」, 『思想彙報』 5호, 56쪽.

92) 이애숙, 1995, 「1930년대 초 청년운동의 동향과 조선청년동맹의 해소」,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385~386쪽.

11일에 괴산 경찰서에서는 이 기념식까지도 금지하므로 일반은 더욱 의혹을 느끼게 된 바, 신간회 괴산지회 총무간사 안철수, 신연우가 괴산경찰서에 가서 금지의 이유를 질문함에 그 대답은 막연하게 상부명령이라 할 뿐이다. 고등계 주임은 말하기를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집회를 허락하면 그 중에서 혹 감정이 촉발되어 치안에 방해가 될 행동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듯 하다고 하더라⁹³⁾

이미 창립식에 일경이 임석하여 불온한 언동에 대해 경고하고 일제는 신간회 창립 1주년을 맞는 1928년 2월 15일 괴산지회에서 기념식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던 중 돌연 기념식의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국적으로 신간회 지회가 설립되고 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이에 당황한 일제가 아예 어떤 대회조차 금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제의 지회에 대한 탄압은 1928년 5월에 있었던 이른바 ‘괴산지회 사건’으로 극에 달했다. 5월 일제 경찰은 지회원 전원의 가택수색을 하고 괴산 경찰서에 소환하여 장시간 취조를 하였다.

1백여 회원을 전부 일일이 취조 조사하고 간부 9명을 송국시켰다. 회장 김용웅과 부회장 정진식 총무간사 김태웅, 박원용, 김승환, 안철수, 상무간사 박일양, 경기홍, 이덕용 등이 공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었다.⁹⁴⁾

그 후 김용웅 등 10명의 간부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었다.⁹⁵⁾ 괴산지회는 이러한 처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일심판결에 불복하여 조선독립목적 혐의 박일양, 안철수 등이 괴산지역에 신간회를 설치한

93) 『동아일보』 1928년 2월 15일.

94) 『중외일보』 1928년 5월 26일.

95) 『동아일보』 1928년 8월 9일. 이때 충북괴산에서 체포된 지회 간부들은 박일양(괴산청년동맹), 정진석(신간지회 부회장), 안철수(신간지회 총무간사), 경기홍(신간지회 상무간사), 이덕용(괴산지회 상임간사), 김용웅(신간지회 회장), 임원상(신간지회 총무간사), 김진성(괴산지회 총무간사), 김태웅(신간지회 총무간사) 등이었다.

것이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혐의로 취조중인데 공주지방 법원에서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반을 구형한 당일 검사의 공소로 허헌이 변호하였다.⁹⁶⁾

그러나 결국 피산지회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안철수와 박일양은 담당 검사의 상고 포기로 1929년 2월 8일 서대문형무소에서 피체된 지 9개월 만에 출옥하여 귀향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산지회는 더욱 거센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출옥 후 다시 활동을 재개한 안철수와 박일양은 경찰의 감시와 금지조치로 총무 간사회 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하는 서면 간사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었다.⁹⁷⁾

일제 경찰에 의한 탄압은 피산청년회에도 적용되었다. 피산청년회는 불온문서가 있다는 혐의를 받아 피산청년회가 운영하던 보성의숙, 동아일보 피산지국이 수색당하기도 하였다.

피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격문이 있다는 이유로 동아일보 피산지국과 피산청년회사무소를 수사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에 호서기자단에서 진상조사를 하고자 진상 집행위원회를 파견하고 항의하자, 피산청년회가 금년 봄에 혁신한 후 경찰 당국에서 항상 주시하여 오던바 동아일보지국 서류를 수색하다가 청년회에서 경영하는 보성의숙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교재와 연사가 불온하다고 인정되어 청년회 집행위원장인 안철수에게 온 문서유무를 보여달라 하였으나 이를 승낙치 않는다 하여 청년회의 서류와 동아일보지국의 서류가 별도로 구별되지 않아 수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였다.⁹⁸⁾

1928년 2월 9일 피산청년동맹의 창립대회에서도 예정된 것처럼 창

96) 『동아일보』 1928년 12월 8일.

97) 『조선일보』 1929년 3월 19일.

98) 『중외일보』 1927년 11월 7일.

립회를 진행하며 괴산청년회집행위원장 안철수의 축사와 괴산소년회 대표 이덕용과 여러 명의 축사가 끝난 후 우의단체에서 들어온 축전문 낭독이 있었는데 신간 청주지회와 진남포 진우청년회와 영광, 양산, 장성 3곳의 청년동맹에서 보낸 축문은 낭독조차도 금지 당했다.

괴산청년회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감시를 받던 괴산청년동맹으로 전환되자, 괴산청년동맹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괴산청년회 창립 때부터 유지해 오던 보성의숙에 대해서도 폐쇄조치를 내렸다.⁹⁹⁾

이에 대하여 괴산청년동맹 및 괴산지회는 보성의숙을 불허하고 여자야학을 금지하는 것은 충청북도의 가혹한 처사라고 결의하고 괴산청년동맹에서 운영하는 무산아동 교육기관인 보성의숙은 7개 성상의 오랫동안 동맹의 고심과 교원들의 열성으로 많은 아동을 교육하였던 바, 금년 봄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도당국과 교섭을 거듭한 결과 결과조사를 하여보고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허가 전에는 당분간 개량서당규칙에 의하여 수업을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군 당국에서는 또 허가치 않음으로 동 의숙은 부득이 폐쇄하는 비참한 경우에 이르게 되어 장래 허가여부는 괴산 일군의 중대문제로 일반은 주목 중이라고 한다.¹⁰⁰⁾

괴산청년동맹에 대한 탄압은 지부에도 예외가 없었다. 경찰은 돌연히 괴산청년동맹 연풍지부 위원장 조기현을 호출하여 장시간 취조하였다. 그것을 청년동맹에서 알아본 즉, 괴산 청년동맹에서 발표한 정책 중 경찰당국에서는 수개 조를 금지하였던 바, 조군은 연풍지부에서 금지한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는 데 경찰명령에 위반 한 것으로 구류 10일에 처하였다.¹⁰¹⁾

99) 『동아일보』 1928년 3월 14일.

100) 『동아일보』 1928년 5월 26일.

101) 『동아일보』 1928년 3월 23일.

VI. 신간회 피산지회의 특징

이렇게 피산청년회에서 신간회 피산지회 창립을 주도하고 함께 활동한 이들은 누구였을까? 과연 충북지역의 신간회를 결성하는 주체들은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¹⁰²⁾

아래의 <표2>는 피산지역의 청년회와 신간지회 운동을 주도하던 인물들의 명단이다.

<표2> 피산지역 청년회 및 신간지회 회원 명단

단체	회 원 명 단	충북 명단
청년회	유문규, 김태웅, 김사원, 김규웅, 박정호, 이종원, 송인섭, 심재덕, 안길수, 김사순, 김인식, 김서웅, 유용규, 홍문식, 안종열, 유중수, 정진석, 신시휴, 인원상, 김영규, 신연우, 유문규, 안철수, 이재화, 홍원식, 경기홍, 유춘옥, 이태원, 유정규, 박일양, 이덕용, 김순기, 이재익, 이순기, 박봉서, 백완기, 이용철, 홍돈희, 정상렬, 김경렬, 조기현, 김태규, 김한영, 김태옥, 김선웅, 김무기, 김진성, 조규대, 장귀?, 김영희, 김상기, 김탁기, 박건양, 이범화, 홍문웅, 남장우	정진석, 김태웅 임원상, 신연우 안철수, 이재화 경기홍, 유정규 박일양, 이덕용 김무기, 김진성 김인식, 남장우
신간회	김용웅, 정진석, 김태웅, 박일양, 임원상, 이재화, 신연우, 경기홍, 김승환, 유정규, 안철수, 이덕용, 김무기, 김용달, 박창희, 안성달, 김진성, 김인식, 남장우	

자료 : 『동아일보』 1921. 8. 19, 1924. 3. 6, 1929. 2. 5 ; 『조선일보』 1928. 2. 16·25, 1928. 3. 7 ; 鮮于基聖, 1973, 『韓國青年運動史』, 금문사, 319~323쪽 ; 이균영, 1993, 앞 책, 625~626쪽 ; 최동일, 2005, 앞 글, 97쪽.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피산지역에서는 1920년대 초기 청년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이 중심이 되어 피산지회 창립에 참여하고, 활동하던

102) 이균영은 신간회를 결성하는 주체는 사상적으로는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의 연합이며, 신분적으로는 부르주아적 혁신청년세력이었다고 보고 있다(이균영, 1993, 앞 책 참조).

간부들로 중복되는 이들은 대략 14명 정도가 확인된다. 피산지회의 주요 간부들의 약력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3> 신간회 피산지회의 주요 간부 현황

이름	직위	나이	주소지	직업	주요활동
김용웅	지회장	58	소수면	농업	소수노동청년회 조직
정진석	부회장	33	피산읍	교사	보성의숙장
김태웅	총무간사	45	피산읍	대서소	피산기자동맹 집행위원장
안철수	총무간사	23	피산읍	신문기자	피산청년동맹회장, 복대표청 주구대표, 본무중앙상무집행 위원
박일양	상무간사	21	피산읍	신문기자	복대표대회중앙집행위원, 피산기자동맹 집행위원
이덕용	상무간사	20	피산읍	신문기자	본무 중앙상무집행위원
임원상	총무간사	30	소수면	교사	보성의숙 교사
경기홍	상무간사	26	소수면		보성의숙 교사
유정규	총무간사	26	피산읍	기자, 교사	보성의숙교사, 피산소년군 제5호대대장
김인식	간사	29	피산읍	기자	피산기자동맹 집행위원

자료: 최동일, 2005, 앞 글, 101~102쪽.

피산지회를 창립했던 이들 중 김용웅은 참봉 출신의 호농으로 지역의 덕망가로서 창립 당시 지회장이 되었다.¹⁰³⁾ 그는 1915년 무렵에는 청년운동을 전개하면서 북경에서 가져온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우물 속에 감추고 팔관회 회원들과 함께 읽을 정도였고,¹⁰⁴⁾ 1920년대에는 청년운동을 주도하면서 전조선청년당 대회에 의연금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청년회와 신간회를 주도하던 이들 중 김태규는 김용웅의 아들로 귀경하여 의전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청년운동에 매진

103) 최동일, 2005, 앞 글, 98쪽.

104) 김원식(김용웅의 손자)에 의하면 八觀會는 金正觀(김용웅), 申琬觀(申圭植), 李晦觀(이을규), 이우관(이정규), 원우관 등 이름이나 호 속에 관자가 들어 있는 8명이 만든 단체라고 한다(이호룡, 2001, 『한국의 아나키즘』, 지식산업사, 89쪽).

했다. 정진석은 청년운동을 하면서 청년회가 운영하는 보성의숙의 숙장을 지냈고 집에서는 술도가를 운영하기도 했다. 김태웅은 한말 무관 학교를 졸업하고 보병 참위를 역임하였으며 대서소를 운영하였다.

안철수는 중앙고보를 졸업하고 『조선일보』 신문기자였다가 농업에 종사하나 자작농 정도였다. 박일양도 집에서 술도가를 운영하였고, 이덕용은 청주고보를 졸업하고 신문기자로 활동하나 가세는 빈곤하였다. 임원상도 보성의숙 교사였으나 가세는 빈곤했다. 유정규는 『동아일보』 기자로 보성의숙 교사경력이 있다.¹⁰⁵⁾

이렇게 단편적으로나마 괴산지회를 주도해가던 인물의 신분, 경력을 살펴보았지만, 이들은 새로운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며 경제적으로는 이덕용, 임원상을 제외하면 모두 부유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북지역 신간회를 주도해가는 주체세력은 신문기자, 교사 등이었으며, 직업은 술도가 운영 등으로 신분과 경력은 다양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이른바 부르주아적인 지식인이었다.¹⁰⁶⁾

괴산지회를 이끌고 주도했던 간부들 중에서 김태웅, 신연우, 안철수, 경기홍, 유정규, 박일양, 이덕용, 김인식, 남장우, 이정규 등은 모두 그 지역 신문기자들이었다. 즉 이들은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 그 지역 사회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이었다.¹⁰⁷⁾

그렇다면 이들의 사상적 경향은 어떠했을까? 1927년 당시 일제측이 파악한 자료에는 충북지역에 사상단체는 1곳, 노동단체 1곳, 농민단체

105) 최동일, 2005, 앞 글, 96~104쪽.

106) 당시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혁신세력들은 지역 청년회 및 신간회를 설립하던 모습이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이같은 모습은 다른 지역의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7) 이런 경우는 충북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중 진천의 경우만 살펴보면 진천 청년회 임원진은 상당수가 신간지회 임원진과 중복되는데 회장 한상혁을 비롯하여 박종영, 이규석, 이정희, 박성희 등은 모두 두 조직의 임원을 겸직하였고, 특히 김예환은 진천청년회 회장직을 역임했고, 『동아일보』 진천지국장으로서 신간회가 주도하는 문맹타파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신간회 진천지회 재정부 총무 간사직을 맡았다(김성보, 2007, 「1900~50년대 진천군 이월면의 토지소유와 사회변화」, 『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 변동』, 혜안, 171~172쪽).

는 없고 청년단체는 11곳으로¹⁰⁸⁾ 그중에 청년단체들 중 좌경적 사상을 바탕으로 조직된 단체들은 아래의 <표4>와 같이 있었다.

<표4> 일제가 파악한 충북지역 좌경적 단체(1927년 현재)

단체명	소재지	설립일	설립자	회원수	운영단체
조선소년군45호대	청주	1927.2.21	허호, 최명식	6	조선소년대본부
진천중견청년회	진천	1927.4.4	최영수 외 9명	30	
덕산청년회	제천	1927.4.26	김충호, 이선근	30	
산동청년회	청주	1927.5.12	이종원 외 5명	49	
괴산소년회	괴산	1927.5.21	곽규석, 안철수	48	괴산청년동맹
충주명륜청년회	충주		김?수 외 3명		충주청년회
청천청년회	괴산	1926.7.6	정상렬 외 7명	25	괴산청년동맹
제천소년회	제천		진우 외 2명		제천청년회
기우단	청주	1926.2.2	신승호 외 5명		신간회 청주지회

자료 : 『最近朝鮮國內思想運動ノ情勢』, 1927, 『韓國民族運動史資料集』, 別紙 第1號.

이곳에서도 좌경적 색채의 단체 중 괴산의 괴산소년회와 청천청년회가 대표적인 사회주의적 색채의 단체로 파악되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괴산지역에서도 괴산청년회나 청천청년회, 괴산소년회 등이 좌익적 색채를 띠며 괴산지회 창립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었던 것이다.

이렇게 충북지역에서 청년운동이나 신간지회에 참여하는 세력은 기본적으로 본질상 우경으로 표면상 좌경을 취하는 모습이 보편적으로

108) 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朝鮮の治安狀況』, 43쪽.

나타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이 신간회를 결성하고 주도해 나가는 이유는 “1927년 8월 경 경성신간회 본부의 회원 등과 교류하며 신간회가 조선민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민족운동을 하고자 조직된 결사라는 것을 알고, 지부설치 후 그 회원의 모집을 신문을 통해서 듣고 신간회가 조선독립을 최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것을 생각하여 그에 가입하고 조선독립의 실현을 도모할 목적으로 박일양, 안철수가 주창하여 그 사무소를 괴산청년동맹회관내에 두고 박일양은 상무간사로 안철수는 총무간사로 종사하며 조선독립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¹⁰⁹⁾ 라고 하며 조선민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민족운동을 하는 결사로 신간회를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한 공산주의자가 당시 사상진영을 설명하는 것처럼 “사회운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민족운동이나 하는 표어는 각각 진영정당의 중심적 기호였다. 물론 당시 사회운동 자체에 있어서는 본질상 우경이면서도 표면상으로는 좌경이었던 것은 사실이거니와 어쨌든 그것은 당시의 그 후에 폭로된 민족운동의 낡은 ‘수령’들의 혁명에 대한 동요와 반심을 반항하는 혁명적 분자들의 귀중한 급진적 항의였으며, 또 그 속에서 공산주의적 분자가 산출 결정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¹¹⁰⁾ 라고 하여 신간회에 참여하는 이들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를 설립하는 것인데 대부분 민족운동을 전개해오던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사상의 외피를 입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러한 외피를 입는 이유는 김단야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의 대부분은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기도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운동을 전위로 활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정도로 민족주의는 모든 면에서 공산주의보다 강력한 활

109) 「安喆洙 외 1인 판결문」, 刑控 第422號, 1929年 2月 8日.

110) 明秀, 1931, 「3·1운동의 역사적 고찰-3·1운동 12주년을 맞으면서」, 『콤뮤니스트』 창간호, 27쪽(최규진,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신간회 정책」, 『대동문화연구』 3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62쪽에서 재인용).

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명한 조치였다.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적 봉기의 주도자가 된다면 이는 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을 공산주의 쪽으로 끌어들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¹¹¹⁾ 전술적인 면으로 공산주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면을 안철수도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안철수는 “나는 사상 운동에 관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괴산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지역 청년운동을 했지만 서울청년회에 가담한 일도 없고 화요계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북대표 대회에는 화요계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홍명희 선생과 같은 괴산출신이어서 옥중에 선생에 대한 대접으로 나를 뽑아주었습니다만 나는 사회주의 진영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굳이 말하라면 민족진영으로 구분되겠지요.”¹¹²⁾ 라고 밝히는 것을 보면 청년회운동을 하면서 신간회를 창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세력은 사상적으로는 굳이 말한다면 민족주의 좌파계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I. 맺음말

신간회는 일제하 식민지 조선에서 민족운동을 추진하던 민족주의 좌파계열과 사회주의자들의 연합으로 결성된 최대 규모 민족독립운동 단체였다. 충북지역은 당시 10개 군이었지만 신간회 지회가 설립된 곳은 5곳이었다. 그나마 지회가 설립된 곳에서도 괴산지회가 거의 유일하게 왕성하게 활동방향을 모색했고 실제로 활동했다. 이러한 괴산지회의 활동상에 나타나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괴산지역에서도 청년회가 조직되어 일반적인 청년회처럼 풍속개발과 지식개발 등을 목표로 야학을 개설하

111) 스칼라피노-이정식, 1986,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돌베개, 130쪽.

112) 이균영, 1993, 앞 책, 178~179쪽.

거나, 강연회 개최, 소작쟁의의 조정 및 소작인조합 결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청년회 활동도 19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그 분위기가 시들해지고 침체상태에 빠지게 된다.

둘째, 192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함께 안철수, 구창희 같은 혁신적인 청년들이 괴산지역에 유입되면서 청년회 활동에 변화가 생겼다.

혁신적인 청년들은 우선 괴산청년회를 장악하고 청년회를 그들의 사상을 반영한 체제로 개편하고 충북지역이나 충남지역까지 아우르는 전국적인 청년운동과 연계하여 활동을 전개하려 하였다.

1926년 식민지 조선 내에서 새로운 관심을 집중시키는 ‘정우회선언’과 일본에서 유입된 ‘福本主義’를 실현해보려는 의도에서 제1선동맹에 참여하고 그 방안을 찾다가 1927년 8월 신간회의 창립과 신간회가 조선독립을 목표로 하는 결사라는 것을 알고 나서 청년회가 주도하여 괴산지역 내 민족운동을 이끌고 있던 지역 유지층과 연합하여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셋째, 괴산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시대적 사조에 따라 괴산지회가 창립되었기 때문에 괴산지회가 추진한 활동은 청년회의 활동과 별개가 아니라 공조 체제하에 이루어졌다. 괴산지회는 1927년 11월부터 1931년 해소될 때까지 중앙지회와의 연계 속에서 활동하려 노력하며,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으로 나타난 충북지역 학생운동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청년회는 지회활동과 병행하기 위하여 방향전환을 시도해 괴산청년동맹으로 거듭나고 그 청년동맹 지부를 확대시켜 나갔고, 지역사회 운동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위해 호서기자단에서 함께 활동하거나 괴산기자동맹도 결성하였다.

넷째, 괴산청년회는 괴산지역이 전통적으로 배일사상이 강했던 지역적 정서를 바탕으로 민족주의자들이 설립한 단체였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부터 유입되는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지식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에 유지해 오던 청년회를 사회주의체제로 개편하면서 지역 민족주의적 세력들과 규합하면서 지회를 창설하는 것을 볼 때, 괴

산지회의 창립과 활동을 주도한 이들의 사상은 민족주의나 혁신적인 민족주의 좌파였다.

다섯째,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역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 진영이나 혁신청년들 역시 지역사회 내에서 민족운동의 내부 동력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해 민족운동을 제대로 이끌 수 없었고, 외부적으로는 일제의 집요하고 강력한 지속적인 탄압이 작용한 결과, 신간회 괴산지회는 민족운동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어설픈 부르주아적 운동이었기 때문에 민족독립운동 차원에서 전개하려던 사회운동은 역량부족과 일제의 탄압이라는 직·간접적인 물리력이 크게 작용하게 되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논문접수: 2014. 9. 30, 심사시작: 2014. 10. 5, 심사완료: 2014. 10. 25]

주제어 : 신간회, 괴산청년회, 정우회선언, 혁신청년, 민족주의 좌파

【참고문헌】

-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의일보』 『매일신보』 『開闢』 『삼천리』
梶村秀樹·姜德相, 1976, 『現代史資料』 29, みすず書房.
「박일양 외 1인 판결문」, 刑控 第422號.
「안철수 외 1인 판결문」, 刑控 第422號.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思想部, 1935, 『思想彙報』 5호.
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朝鮮の治安狀況』.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朝鮮の治安狀況』.
朝鮮總督府警務局, 1979,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 風媒社.
朝鮮憲兵隊司令部, 1919, 『朝鮮騷擾事件狀況』.
『韓國民族運動史資料集』 『思想問題에 관한 調査書類』.
- 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강신옥, 2001, 『증평·괴산 근·현대사』, 푸른나라.
김성보, 2007, 『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 변동』, 해안.
김창순, 1996, 『한국독립운동사사전』,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박걸순, 1996, 『괴산지방 항일독립운동사』, 괴산문화원.
박철하, 2000, 『통일지향우리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스칼라피노·이정식, 1986,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돌베개.
스칼라피노·이정식 외 6인, 1983, 『新幹會硏究』, 동녘.
안건호, 1995,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이균영, 1993,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이호룡, 2001, 『한국의 아나키즘』, 지식산업사.
鮮于基聖, 1973, 『韓國青年運動史』, 금문사.
- 강정숙, 1984, 「일제하 안동지방의 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김승, 2000, 「한말·일제하 동래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 역사』 6, 부경역사연구소.
- 김인덕, 2000, 「정우회선언과 신간회창립」, 『국사관논총』 89, 국사편찬위원회.
- 김인식, 2004, 「신간회운동기 ML계의 민족협동전선론과 신간회 성격 규정의 변화」, 『백산학보』 68, 백산학회.
- 김정권, 2000, 「기독교세력의 신간회 참여와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朴明煥, 1936, 「新幹會 回顧記」, 『新東亞』 54.
- 윤호정, 2007, 「신간회 지회연구의 성과와 과제」, 『역사문제연구』 18, 역사문제연구소.
- 李均永, 1982, 「新幹會의 創立에 對하여」, 『韓國史研究』 26, 한국사연구회.
- _____, 1985, 「신간회의 결성에 따른 ‘양당론과 청산론’검토」, 『동아시아 문화연구』 7,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_____, 1987, 「지회설립에 따른 신간회의 「조직형태」검토」, 『동아시아 문화연구』 11,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_____, 1992, 「신간회 군산지회의 설립과 구성원」, 『서암 조항래교수 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아세아문화사.
- _____, 1992, 「신간회 평양지회의 조직과 활동」, 『수춘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국민족운동사논총』.
- _____, 1994, 「신간회의 분열과 해소운동」, 『쟁점 한국근현대사』 4, 한국근대사연구소.
- 李敏淑, 1962, 「新幹會와 抗日運動」, 『綠苑』 7, 이화여대.
- 李炳憲, 1969, 「新幹會運動」, 『新東亞』 60, 1969년 8월호.
- 이애숙, 1995, 「1920년대 전남광주지방의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 운동사』, 풀빛.
- _____, 1995, 「1930년대 초 청년운동의 동향과 조선청년동맹의 해소」,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 李源赫, 1960, 「新幹會의 組織과 鬪爭」, 『思想界』 1960년 8월호.
- 이윤갑, 2004, 「일제하 경상북도 지역의 신간회 지회운동」, 『동방학지』 12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_____, 2004, 「일제하 경상북도 지역의 신간회 지회운동」, 『동방학지』 12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이준식, 2000, 「광주학생운동과 민족운동 세력」,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 이현정, 2002, 「신간회 안동지회의 신간회운동」, 『안동사학』 7, 안동사학회.
- 이현주, 1995, 「신간회운동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3, 한울.
- 李炫熙, 1971, 「新幹會의 組織과 抗爭」, 『史叢』 15·16합집, 고려대사학회.
- 장승순, 2013, 「일제강점기 충북지역 농민운동」, 『역사와 담론』 68, 호서사학회.
- 조규태, 2000, 「신간회 경성지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89, 국사편찬위원회.
- 조성운, 1999, 「일제하 영동지방 농민운동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1, 「일제하 수원지역의 신간회운동」,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사연구회.
- 지수걸, 1999, 「일제하 충남 조치원 유지 맹의섭의 ‘유지기반’과 유지정치」, 『역사와 교육』 3·4, 웅진사학회.
- 최규진,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신간회 정책」, 『대동문화연구』 3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최동일, 2005, 「신간회 괴산지회의 조직과 활동」, 『충북사학』 15, 충북사학회.
- 최원영, 1993, 「신간회 해소의 배경과 과정」, 『충북사학』 6, 충북대사학회.
- 한상구, 1994, 「1926~28년 사회주의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론』 3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Abstract>

The character of Geosan branch of Singanwheo in Chungbuk province

Jang, Seung-soon

Singanwheo(新幹會) was the largest organization of national movement for independence, which consisted of both the nationalism lefts who had worked for national movement in Korea and socialists in 1927. Those days, Chungbuk province was made up of 10 counties but the branches of Singanwheo were established in only 5 provinces. Only Gweosan branch of them sought the direction of activities briskly and actually worked. These specialties can be arranged as follows:

Firstly, in the beginning of 1920s, a youth group was organized in Gweosan and it developed custom and knowledge improvement. However the youth group's activities diminished and were depressed in the middle of 1920s.

Secondly, the inflow of socialism and progressive young people resulted in a change of youth group's activities in Gweosan after the mid of 1920s. The progressive young adults dominated the Gweosan youth group and reorganized the system with their doctrine. They tried to develop activities connected with youths' activities of country covering Chungbuk and Chungnam province. Therefore, with the declaration of Jeongwoo organization(政友會宣言) which concentrated new interests in Joseon colony and with intention to come true Bockbunism(福本主義) flowed from Japan, they joined the first alliance and were looking for the way. After

knowing that Singanwheo was the organization aiming for the independence of Joseon, finally they founded Singanwheo in August, 1927 with the community leaders, who were leading national movement in Geosan.

Thirdly, the branch of Geosan was founded as the tendency of an era by Geosan youth group. So its performing was not different from but related to the youth group's activities. The Geosan branch worked constantly from November, 1927 to 1931 until it closed. Its working was divided into the activities of the branch of Singanwheo, the ones of youth group and those of community movement organization(民族主義 左派).

Fourthly, as mentioned above, the youth group of Geosan was the organization established by anti-Japan nationalists. However the young adults, who accepted socialism flowed from the mid of 1920s, reformed the youth group with the system of socialism. And then they founded the branch with nationalists, in other words, the thoughts of those who ruled the foundation and the activities of Geosan branch were nationalism or progressive left nationalism.

Fifthly, internally, nationalists based on community and progressive youths also didn't take their places completely. Therefore they couldn't lead national movement well. Externally, Japanese government suppressed that organization constantly and powerfully. Though Geosan branch presented national movement, it was poor bourgeois'. So the social movement didn't succeed because of their poor ability and Japanese suppression.

Key words : Singanwheo, the youth group of Geosan, the declaration of Jeongwoo organization, the progressive young adults, the community movement organization.